



마리아의 전교자 프란치스코 수녀회
Francis an Missionaries of Mary

나눔

희망을 지피는

2020.6

지호와 윤우 이야기

후원자 나눔

희망을 지피는 나눔에 동참해 주시는 후원 회원님들께 저는 오늘 하느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축복의 선물로 주신 지호와 윤우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이
사랑으로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1코린 16,14)

”

지호네를 잠깐 소개해 드리면, 지호 언니 지원이는 건강하게 엄마 품에서 나와 세상에 힘찬 야호(울음)를 터트리지 못하고 하느님 품으로 갔습니다. 그 후에 지호는 부모님의 슬픔을 멀리 보내고 태어난 소중한 자녀입니다. 그래서 가족들은 건강하게 태어난 지호의 탄생을 기념하여 부모님께서 탄생 축하금을 지호 이름으로 후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지호 언니 지원이를 위하여 부모님이 부탁하신 대로 연미사를 봉헌하였습니다.

“

우리 생명의 주인은
하느님이시다.

”



윤우 사도요한은 출산예정일 이틀 전에 태반이 엄마 뱃속에서 분리된 상태에서 세상으로 나왔습니다. 처음 윤우가 세상에 나왔을 때 심장이 멈춘 상태였기에 큰 병원으로 옮겨서 심폐소생술을 하였습니다. 그때 생존율은 30%였고, 뇌와 장기손상이 있을 것이라 생각했었습니다. 윤우는 50일간 중환자실에 있으면서 하루에 3번만 가족들의 면회를 받았습
를 받았습니다. 지금도 재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신장이 약한 상태입니다. 윤우가 태어나
기를 기다리던 가족들은 뜻하지 않은 이 상황에서 할 수 있었던 것은 윤우에게 생명을 주
신 하느님께 기도하는 것 밖에 다른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윤우를 대신해서
아플 수도 없고, 그 무엇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도 수녀원에서 윤우를 위한 기도
요청에 모든 수녀님이 정말 간절하게 기도드렸습니다. 그리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
다. 윤우가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심장이 멈춘 후 가능한 한 빨리 병원에서 치료했어도
장기 손상과 심한 장애가 있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도 첫돌을 맞
이하였습니다.



“

하느님께서 보시니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이
참 좋았다
(창세1, 31)

”

저희도 이 소식을 들으며 정말 하느님께서 다시 윤우를 살려주셨다는 체험을 하였고 ‘우
리 생명의 주인은 하느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더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호와 윤우의 출산 과정을 듣고 두 가족 모두 감사의 마음으로 후원을 하고 싶다는 말씀
을 듣고 이 아름다운 가족들의 마음을 ‘나눔’을 받아보시는 분들과 나누고 싶어서 펜을
들었습니다. 지호와 윤우는 부모님의 간절함이 하느님 축복을 통해 우리에게 선물로 왔습
니다. 그리고 두 아이 모두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두 손을 모아 봅니다.

- 금미경 베로니카.fmm

그리스도교에는 책임이 없는가?

JPIC 글 나눔

1967년 미국의 역사학자 린 화이트(Lynn White Jr. 1907-1987)가 쓴 논문 한편이 종교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생태계 위기의 역사적 기원”이라는 글에서, 생태환경 문제는 그리스도교에게 일부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린 화이트 외에도 많은 학자들이 그 의견에 동의하였습니다. 이들의 주장 중에서 우선 두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창조설화에 대한 이해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모든 생물을 다스리고 지배하라”고 하십니다. 그리스도교는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여, 그야말로 인간을 만물의 지배자로 여겼고, 자연환경을 마음대로 훼손하고 이용했다고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뿐 아니라 많은 이들이 자연을 함부로 대해도 된다고 여겼고, 성경을 잘못 이해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어느 한 구절만 달랑 떼어놓고 문자 그대로 해석하기 보다는, 성경 전체가 전하는 메시지와 맥락에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다스림”은 “하느님의 다스림”에서 그 본모습을 찾아야 합니다. 하느님의 다스림은 억압이나 착취가 아니라 사랑과 봉사의 섬김입니다. 이러한 하느님의 다스림은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통해 구체적으로 드러났습니다. 하느님 당신 자신이 세상을 사랑으로 다스리시면서, 인간들에게는 자연을 착취하며 다스리라고 명령하실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 “만물을 다스리라”는 말씀은, 만물을 사랑으로 돌보고 더불어 살아가라는 뜻으로 알아들어야 합니다. 생태학에서는 특히 “돌본다”는 점을 강조하여 이를 “청지기 정신”이라고도 합니다.

학자들은 또한 그리스도교가 인간중심적 구원론에 치우쳐 있다고 합니다. 특히 린 화이트는 그리스도교가 지구상에 나타난 종교 중 가장 인간중심적인 종교라고 비난했습니다. 하느님의 사랑을 지나치게 인간중심적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과연 하느님은 인간만을 사랑하실까요? 그렇지 않을 것

정의

JUSTICE

평화

Peace

창조보전

Integrity
of
Creation

입니다. 창조이야기만 보더라도 하느님께서서는 다른 피조물에 게도 “번성하라”고 축복을 내리십니다. 또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하느님께서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 아들을 보내주셨다”고 합니다. 이 때 “세상”은 오로지 “인간들 만의 세상”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만물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생각해 보면,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인간들뿐 아니라 모든 피조물을 포함한 세상일 것입니다. 더구나 오늘날 생태신학에서는, 하느님께서 해와 달과 별들도 창조하셨기에 “우주”도 피조물에 포함시킵니다. 그 외에도 탈출기 23장 10~12절을 보면, 안식년과 안식일에 대한 조항에서 땅과 짐승도 쉬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인간뿐 아니라 모든 피조물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스도교를 비난했던 린 화이트는, 아이러니하게도, 생태 환경 문제의 희망도 그리스도교 안에서 찾습니다. 논문 말미에서 그는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를 언급합니다. 프란치스코 성인은 자연을 지배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형제요 자매로 보았습니다. “형님인 태양과 누님인 달, 어머니이신 땅”이라고 불렀습니다. 심지어 린 화이트는 그분을 생태학자들의 수호성인으로 추천합니다. 과연 프란치스코 성인께서는 1979년 생태계의 수호성인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오늘은 좀 딱딱한 주제를 다루어 보았습니다. 그리스도교에 관심이 없는 분들께는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교가 여러 종교 중 큰 비중을 차지하므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겠다 싶었습니다. 더구나 올해는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환경에 관한 회칙 <찬미받으소서>를 반포하신지 5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리스도교에 책임이 있다면 이제부터라도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돌보는 일에 앞장서야 하겠습니다. 53년 전, 린 화이트로부터 시작되었던 그 비난이 앞으로는 더 이상 효력이 없기를 바랍니다.



- 이영주 스텔라.fmm

코로나19를 겪으며...

정선 공동체 수녀들의 나눔

자연이 아름다운 강원도 정선의 정선성당에서 우리 공동체는 이 특별한 시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우들과 지역의 어르신들을 위해, 특별히 정서적으로 위로를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을 모아보니... ‘쭈’이었습니다. 한국의 어르신들이라면, 아니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따뜻한 봄이 왔음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식물로 ‘쭈’를 생각합니다. 쭈는 새 봄의 생명과 건강을 상징하고 그 향기가 주는 애뜻함이 있습니다.

공동체의 자매들은 인근의 강변과 언덕, 나무그늘 아래를 찾아 서너 차례 쭈를 캐며, 모두가 ‘그래, 이 쭈으로 떡을 만들어 홀로 계신 어르신들과 나누자’라는 마음에 매우 기뻐합니다.

쭈를 캐고 삶아서 방앗간에서 떡을 만들어 본당과 지역, 공소의 독거 어르신들을 방문했을 때 모두들 얼마나 기뻐하고 좋아하셨는지 모릅니다. 어떤 할머니는 침대에 누워 ‘기운이 없을 때 쭈 털터리를 좀 먹어보았으면...’하고 생각 하는 중에 우리가 떡을 갖고 왔다면 너무나 고마워하셨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동안 본당에서는 마스크를 제작하여 직접 방문해서 나누기도 했었는데, 우리는 공동체 차원으로 시작한 작은 떡 나눔이 사람들의 마음에 매우 따뜻하고 정겨운 것으로 감동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마리아의
전교자
프란치스코
수녀회
정선 공동체



자동 이체를 원하시는 분은 도장, 통장,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아래 은행을 방문하셔서 이체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예금주 : 재) 성 프란치스코 수녀회

국민은행 362737-04-000395

농협 100072-51-060834

* 후원금이 아닌 미사예물이나 봉헌금은 다음 계좌로 보내주세요.

농협 352-1499-1313-23

예금주 : 김계숙

후원회 : 010-2821-8174 수녀원 : 02-865-8174

E-Mail : fmmssp@hanmail.net

회원님들의 희생과 수고, 사랑으로 보내주신 후원금에 감사드립니다.

5월1일 ~ 5월31일까지 입금하신 후원자 명단

(재)고려문화재단 (주)영전 강경아 강미현 강승완 강신연 강연호 강영혜 고대완
강지우(왕효준) 고월순 고유연 고재영 고지영 고희숙 공해용 구영희 구용희
구윤정 구인순 권순익 권영오 권진선 금부동 금창호 김경미 김경희 김광기
김광자 김귀선미리암 김귀선스테파니아 김남기 김덕철 김도상 김도영 김동일
김두현 김두환(김철형) 김득수 김득현 김미리 김미애자 김민규 김상규 김상률
김상연 김상태 김셋별 김선옥김성미 김성용 김성원 김성환 김수경 김동현루가
김수자세실리아 김순철 김시운 김시준 김애자 김연진 김영덕프란치스코 김영옥
김영운 김영재(허갑수) 김영주 김영준 김영희 김옥림 김옥주 김용덕 김용수 김용식
김옥주 김용덕 김용수 김용식 김용주 김용준 김원진 김유정 김인희 김재욱 김정주
김정매(박치현) 김정숙마리아 김정웅(김명신) 김종연 김준희 김지혜 김진미
김진숙알테군다 김진식 김진옥 김춘자루갈다 김춘자안나 김태욱 김해자 김혜겸
김현숙(최지명) 김호생 김호송 김홍양 김희재 김용자(윤소라)나숙희 나정순
남봉원 노미경 노병덕(권정희) 노봉근 노석심 노연주 노유리 노정애 류순자 명영희
문경희 문성식 문준식 민정웅 박말순 박민선 박병옥 박병주 박성길(정은아)
박성준다니엘 박성준도미니꼬 박성현 박수경 박순옥 박승민 박양순 박용숙데레사
박원서 박윤실 박은정 박은희 박인호 박일영 박재용 박정선 박정순(임현서)
박정식 박정연 박찬순 박태분 박현희 박홍권 박화자 박희수 박효정 박희순 방진
배윤숙 배인호 배장열 배철희 백미자 백성대 변복자 변태식 삼성동성가정나눔회
서덕순 서춘자 서태진 서현수 성상모 성영주 성옥이 소재록 손순덕 손은주 손정례
송비아 송순이 송승윤(김영임) 송영희 송정애 송채영 송혜경 신승일 신재진
신주화 심귀선 아가맘2호 안미령 안양금 양미경 양영자 양윤석 양종한 여현주 영
오숙자 오영희 오옥형(최민귀) 오지연 우복명 우영희 운남동빈첸시오 원ENG
원세경 유미경 유병춘 유시연 유영재 유은분(세인부동산) 유은정 유춘성 육동배
유혜정헤레나 유희숙프란치스 윤경숙(제일) 윤군자 윤규현 윤명희 윤문섭 윤보미
윤미숙테보라 윤미숙파우스티나미 윤봉수 윤순자 윤순희 윤정희 윤한희 윤현숙
이갑수 이관훈 이광희 이기정 이기향 이기혁 이남순 이동세 이동준 이동현 이명혜
이명순(이선영) 이미자 이민희 이복순 이상문 이선경쩨마 이성엽 이성혜(유주영)
이연신 이연실 이연재 이영미 이영복 이영애 이영혜 이옥자 이용길 이유순 이윤신
이은정 이은주 이인동 이인숙로사 이인숙(경동메디칼) 이정란(최윤) 이정원
이정숙데레사 이정숙마리아 이정숙수산나 이정준 이정희소피아 이종옥 이준우
이지인프란체스카 이태금 이필단 이항남 이해일 이현순 이혜숙 이홍식 인용석
임승옥 임지원 임진수 임호 장미경 장민정 장세옥 장영표 장우영 장원태 장현아
전순자 전영관 전충엽 정경원 정경필정광진 정동락 정미영 정미희 정복순 정부강
정석영 정성민 정소영 정수인 정숙자 정영숙 정옥희 정재영 정진명 정진숙
정향숙쩨마 정혜경 정혜숙플로라 정희과키스탄 조국제 조근미 조남섭 조명숙
조상위 조석금 조수미 조재호 조혜영 조희공 조희무 주)가나스틸 진숙인 진신아
최규범 최금영 최금영 최두진 최미양 최선애 최성순 최숙규 최순애 최연희 최옥자
최원단 최원철 최인석 최일순 최지은 최향미 최혜정 최효순 최희선 추상식
추수옥케나 추영숙 추종현 태계남 파키스탄박진 하옥경 한기훈 한순옥 한순희
한영미 한옥선 한은희 한진경 한효정(권오현) 허정자 현경미 홍말숙 홍명숙
홍미자 홍민선 홍민희 홍성란 홍세아 홍수봉 홍승희 홍은숙 홍익기 황경희
황달수 황복 황정숙